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새 예루살렘 —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온 이기는 이들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완결

성경: 행 26:19, 골 2:2, 3:4, 엡 3:4, 4:16, 계 3:12, 21:2, 9-11

- I.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 행 26:19, 엡 3:10, 딤후 1:4, 골 3:4, 엡 1:22-23.
- A.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중심 항목에 관한 이상, 곧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안에 있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엡 1:17-18상, 행 26:19, 골 1:25-26.
1.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우리의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 롬 9:23-24, 고후 4:7, 골 2:2, 엡 3:4.
 2. 주님의 회복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체현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 골 2:9, 엡 3:19하, 딤후 3:15-16.
- B. 성경의 통제하는 이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선택되고 구속된 그분의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신성한 삼일성으로 그들의 전 존재를 적시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이다 — 엡 4:4-6, 계 21:2, 9-10.
- II.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심으로,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 요 1:12-14, 요일 3:1-2, 롬 8:3, 12:4-5, 계 11:15.
- A.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선택되고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 딤후 1:4, 엡 1:3-23.
- B.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롬 8:3, 1:3-4, 8:4, 14, 29, 12:4-5.
- C.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확대와 표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 엡 1:7, 4:16, 계 21:2.
- D.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다 — 롬 8:3, 1:3-4, 8:14, 16, 29, 12:4-5.

Ⅲ.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이상의 완결이자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완결이다 — 계 21:2, 9-11.

- A.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관련된다 — 계 21:2, 3:12.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이 함께 연합되고 조성되어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계 21:3, 22.
 2. 결국,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합병된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된다 — 롬 5:10, 계 3:12.
-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증가와 확대와 표현인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 롬 8:29, 히 2:10-12, 계 4:3, 21:10-11.
1.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과 같은 조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 계 21:2, 10-21.
 2. 새 예루살렘은 선택되고 구속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확장과 표현이다 — 계 21:10-11.
 3.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이며,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 창 1:1, 요 1:1, 14, 고전 15:45하, 계 22:17.
- C. 새 예루살렘은 참되고 완결된 솔라미, 곧 단체적인 솔라미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아 6:13, 계 21:2, 9-10, 22:17.
1. 솔로몬의 복사관인 놀라운 솔라미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상징이다 — 아 6:13, 계 21:2, 9-10.
 2. 솔로몬의 배필로서 솔라미는 하와가 아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솔로몬과 똑같이 되었다 — 창 2:20-23.
 - a.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그리스도께 어울리게 된 것을 상징한다 — 고후 3:18, 롬 8:29, 계 19:7, 21:2.
 - b. 그리스도의 많은 연인들이 결국에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복사관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곧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성취일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아내와 그리스도는 함께 합해져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완결된 솔라미이다 — 계 22:17.
- D.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금등잔대, 곧 성경에 있는 등잔대들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 계 1:12, 20, 21:18하, 23-24상, 출 25:31-37, 왕상 7:49, 슥 4:2.
1. 금등잔대들인 교회들은 모든 등잔대의 집대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1:20, 21:18하, 23.
 2.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등이신 어린양을 붙드는 우주적인 금등잔대이다 — 계 21:18, 23, 22:1, 5.
 3. 모든 등잔대의 집대성이자 오늘날의 등잔대들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은 완결된 우주적인 금등잔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낸다 — 계 21:24.

4. 금등잔대는 체현되시고 표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등잔대로 묘사된 삼일 하나님의 방면들을 더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실지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인 금등잔대가 되며, 이처럼 우주적인 금등잔대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1:12, 20, 21:18.

IV.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의 강화의 단계에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는데, 이들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오고, 교회의 타락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 — 계 1:4, 2:7, 11, 17, 26, 3:5, 12, 21.

A. 교회의 타락 때문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일곱 배로 강화되시어 일곱 영이 되었다. 일곱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신다 — 계 1:4, 4:5, 5:6, 3:13.

B. 교회들의 타락을 이기는 면에 있어서, 이기는 이들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오고, 사탄적인 유대교와 귀신적인 천주교와 죽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개신교를 이긴다 — 계 2:9-10, 24-28, 3:1-5, 20-21.

C.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모든 것을 이긴다 — 요일 2:18, 22, 빌 3:7-11.

D.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해 있다 — 엡 4:12, 16, 계 2:7하, 3:12, 21.

1.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 돌아오실 수 없다 — 계 19:7-9.

2.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 이기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계 1:4, 4:5, 5:6, 3:1, 12.

3. 이기는 이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완결을 위한 것이다 — 계 2:7, 3:12, 21:2.

E.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이기는 이) 위에 기록할 것이다.” — 계 3:12하.

1.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이 모두 이기는 이 안으로 일해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이기는 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은 이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임을 가리킨다. 천년왕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일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우리의 관념과 습관을 이김으로 성경의 중심 이상을 보고 실행함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글에 있는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할지 모른다. 우리가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다. 처음 세 가지

는 우리의 타고난 관념과 종교적인 관념과 전통적인 관념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 종류의 관념의 영향 아래 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특별히 영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관념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전통적인 관념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감추어져 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관념이나 종교적인 관념이나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경을 읽을 때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는 덮개나 너울이 있는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실행들이다.

우리 각 사람이 관념들과 습관적인 실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참된 진리와 계시가 우리의 관념들과 습관들에 의해 가려져 있다.

전통적이며 종교적인 관념들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반대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취하신 길이다. 주님은 심지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나 ‘독사의 자손들’이라고 부르셨다(마 23:13, 12:34).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전통적인 유대교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전통적인 종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며 따랐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한 명도 얻지 못하셨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이 유대교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먼저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셔야 했다.

그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전통적인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왔을 때 백이십 명은 전통적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다. 결국 주님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티투스스에 의해 훼파되도록 허락하셔야 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계속해서 교회에게 영향을 주어 혼합의 상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님,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관습을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행 21:20-21)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에게 성전에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하는 다른 네 명의 사람의 비용을 내주어서, 그가 유대교 율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설득시켰다.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원칙에 따라 이 제안을 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바울을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나게 하시어, 그의 서원이 중단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교회에게서 낳은 유대교적인 영향을 일소시키기 위해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훼파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훼파되도록 허락하셨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도 훼파되도록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이천 년 동안 회복되지 못했다.

전통적인 관념은 끈적하다. 심지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비행기가 지면에 있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공중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힘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들의 영향 아래 머물거나 그 영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만, 그 위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신 모든 진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것이었다. 수 세

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구절들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강해하며 해석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동일한 너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고후 3:14-15) 그들은 구약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읽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속 중에서도 작은 부분만을 다룬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중에서 작은 부분이다. 더욱이 많은 단체들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재는 갖고 있지 않다. 많은 교파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많은 것들로 대치하여 그것들을 누린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훨씬 더 많이 누린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관심할 시간은 없지만, 크리스마스를 관심할 시간은 많이 갖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늘에 둔 채로, 이 땅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누린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지만, 복음의 참된 진리는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축대 벽 뒤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으로서 우리를 일으켜서서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우리가 가르치고 살아 내는 것은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종교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며 우리에게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람들을 축대 벽 뒤에 두고 우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이다. 원수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에서도 이 전략을 사용했다.

마귀는 또한 회복 안의 교회들 안으로 간교하게 기어 들어와 교회를 손상시키는 이물질들을 가져 오려고 한다. 그러한 것들은 교묘하게 위장되어서 쉽게 분별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회복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내적인 요소와 본성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실지 전쟁이 있다. 원수 사탄은 자신을 위해 이 땅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땅을 얻는 주님의 유일한 길은 진리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진리가 유일한 치료제이자 예방 접종이자 항생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상황을 상기시키고 진리를 상기시켜야 한다. 진리가 해방되고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심지어 교회들 안의 인도하는 형제들도 그들 자신에게 진리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습관은 너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계시가 부족한 것이다.

진리는 결코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존재 안에 새겨져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았을 때, 그것이 다시는 지워지거나 상실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계시를 회복하셨다.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 새사람,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의 주님의 회복 초기에는 니 형제님이 본 것처럼 중심 이상을 본 성도들이 거의 없었다. 수백 명의 동역자들과 수백 곳에 지방 교회들이 있었지만, 니 형제님은 그러한 상황이 기쁘지 않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따르지만 아직 그가 본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회복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중심 이상을

보았는가에 있다. 그들이 중심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중심 이상이 없다면 인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오백 명을 먹이셨지만, 주님의 승천 후에 다만 백이십 명만 남았다. 우리가 단지 좋은 메시지만 전한다면,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 없다. 주님의 회복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차이점은 중심 이상에 있다. 성도들이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반복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을 수행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지연될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주로 교회들의 확산이나 인수의 증가나 축복의 다른 외적인 표시들을 관심하지 않는다. 그보다 나의 주된 관심은 중심 이상에 관한 말씀을 해방하고, 모든 교회들 안의 참된 상황을 돌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길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견고한 방식으로 중심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전통적인 기독교의 반복과 그 일부가 될 뿐이다.

우리는 모두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안에 있는 중심 이상을 보아야 한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시간을 들여 바울의 열네 서신을 연구하고 주님의 중심 이상에 관하여 교통해야 한다.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날처럼 열린 적이 없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열어 주는 열쇠가 되는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청사전에 따라 집을 건축할 때, 그 청사전 속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떤 신성한 원칙들에 따라 규제된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을 열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강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원칙들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들을 주셨다. 주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또한 주님의 공훈에 달려 있다. 말씀이 합당하게 열릴 때, 참된 믿는 이는 틀림없이 말씀이 열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오늘날 성경 전체가 열렸고, 열린 성경에 따른 사역을 받아들이는 추구하는 이들은 유익과 이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회복을 수행하고 계신다.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이다. 성경의 최고봉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강화하고 확증한다. 이 두 사역은 두 봉우리가 있는 하나의 산과 같다. 조만간에 주님은 그분의 회복의 최고봉을 수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린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며, 우리가 말하고 출판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것을, 찾고 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얻으실 것이다. 비록 나는 현재의 회복과 인도하는 형제들과 나의 사역의 결과를 염려하지만, 나는 이 세대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라도 모든 진리들이 인쇄되었고 또 다른 세대가 이 진리를 취하여 수행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위안을 얻는다. 일단 진리가 해방되면, 그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발견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썩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진리가 오늘 그 목적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여 그 성취를 지연시키든지, 어느 날에는 이 진리가 편만하게 되어 그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오늘날 주님과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열어 주신 진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평범한 기독교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적인 지혜와 공손함을 사용해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모호하게 할 것이다. 공손함은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한다. 어떤 친구 관계도 공손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참된 친구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진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면, 조직화된 기독교는 우리를 환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의 솔직함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나는 바울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한 첫 번째 박해 때 붙잡혀 순교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많은 것을 얻었다.

비록 플리머스 형제회가 주님께 사용되어 어떤 진리들을 회복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습관적이 되었다. 그들이 집회하고 복음 전파와 같은 일을 하는 방식은 더 이상 내적인 계시나 열성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습관적인 실행 때문이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습관 때문에 집회하거나 기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집회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 내적인 동기 유발이 되어 우리를 영 안에서 신선하고 불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관적이 된다면, 우리는 수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집회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낡아지고 습관적인 실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권유해야 한다.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라고 말했다. *(새 언약의 사역, 영문판, 151-156쪽)*